단천 출신 김 일성설(金一成說)

함경 남도 단천(端川) 출신들은 40대 이상이면 누구나, <애국자 김 일성 장군>을 단천 출신으로 알고 있다. 그 분이 단천군 수하면(水下面) 황곡리(黃谷里)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왔으며, 수시로 독립군을 거느리고 고향에 나타나 일군과 싸우기도 하고, 군자금(軍資金)을 징모(徵募)해 갔다는 사실도 전해 들어 왔다.

북한 집단의 김 일성이란 자가 일제와 맞서 싸운 애국자 김 일성 장군의 함자(啣字)①를 도용(盜用)했다는 사실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김 일성 장군의 실존(實存) 여부를 알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여기에서 <단천 출신 김 일성>장군에 대한 문헌 기록 및 증언을 밝혀 두기로 한다.

목견자 두 사람

현재 생존(生存)하고 있는 단천 출신 가운데에는 어려서 그리고 젊었을 때, 김 일성 장군을 목견(目見)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서 춘식(徐春植=77세=서 울에 거주), 다른 한 분은 진 승렬(奏承烈=72세=서울 거주)이다.

서 춘식은 그가 어렸을 때, 독립군에 가담한 김 일성 장군을 실제 목견했으며, 어른들이 <저 사람이 김 일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진 승렬은 그가 단천 천찰서 경찰관으로 근무할 때, 자기 당번 시간에 변소를 가는 도중(당시는 유치장이 없었다고 함)에 감시 경찰관의 눈을 피해 재빨리 탈출한 사람이 <김 일성>이라는 사실을, 후일 알게 됐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때, 일본인 경찰서장은 당번인 그를 책벌(責罰)하기에 앞서, 이 중요 인물을 놓쳤다는 책임 문제 때문에 몇몇 당사자만 불러서 <김 일성>이라는 사실을 일체 밝히지 말라고 묵살(默殺)한 일이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이 사건은 상부에 보고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우물쭈물 넘길 수 있었다고 한다.

한편, 수하면 황곡리 출신, 김 순언(金淳彦=60세=서울 거주)의 증언에 의하면, 애국 지사 김 일성 장군은 단천군 수하면 황곡리 자관촌(自寬村)이라는 화전민 촌에서 아버지 김 두천(金斗天)과 어머니 설씨(薛氏) 사이에서 난 3형제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이다. 본명(本名)은 창희(昌希=형은 昌元, 동생은 昌道)이다.

아버지 김 두천은 이조 말엽 과거에 급제하여, 함경 북도 온성군(穩城郡) 군수를 지냈으며, 창희가 아홉 살 되던 해 그 곳으로 솔가해 갔다고 한다.

창희가 독립군을 거느리고 자주 드나든 곳은 바로 본군과 풍산군(豊山郡) 천남면(天南面)과 접경(接境)하고 있는 오봉산(五峰山)이었다.

오봉산은 홍 범도(洪範圖) 장군이 의병을 거느리고 왜군을 섬멸(殲滅)했던 유명한 전략지(戰略地)이다. 지형적으로 독립군 거점이 매우 유리한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 창희는 오봉산에 독립군의 거점을 삼았던 것이다. 더우기, 고향 땅이기 때문에 군량(軍糧)이나 군자금 갹출(醵出)에 유리하였기 때문이리라.

일제는 이곳에 드나드는 독립군 속에 김 일성 부대가 있음을 알게 되자, 불과 30여

① 함자=이름

호에 지나지 않는 자관촌 마을 가까이에 경찰관 주재소를 설치했으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고성(古城) 땅에 헐병 파견대까지 주둔시켰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곳에 드나드는 독립군이 유명한 부대임을 알 수 있고, 당시 일본 경찰이나 헐병들이 그들의 입으로 <김 일성 부대가 드나든다>고 말하고 있었던 사실로 보아, 어느 정도 이 항일 독립군 부대의 윤곽을 알 수 있다.

환영 주민 참살

가장 유력한 증거로 1924년에 있었던 <김 일성 환영 주민 참살 사건>을 들 수 있다. 황곡리 주민들은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되는 김 창희가 독립군 부대장이 돼서 이 마을에 나타나자 돼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 사실이 헌병 파견대에 알려져 환영회에 참가했던 마을 사람들(주동자 김 병근(金丙根=김 창희의 어렸을 때 친구) 10여 명이 고성 헐병대에 끌려갔다.

이 때, 헌병 취조관(命倉上等兵)이 독립군 사진을 제시하며, <이 중에 김 창희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김 병근씨가 김 창희를 가리키자, 취조관은 <그 자가 바로 김 일성>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취조가 만치자 헌병들은, 1개 소대의 군경을 인솔하고 김 병근 외 10여 명을 자관촌 산골짜기로 끌고 가서 모조리 참살하고, <불발덕>이라는 화전민 촌에 불을 질렀다. 잔악한 왜놈 군경들은 불길 속에서 뛰쳐 나오는 아녀자들에게까지 총질해서 30여 명의 주민을 몰살했던 것이다.

이 사건에서 <김 창희>와 <김 일성>이 동일인(同一人)임을 주장한 헌병 취조관의 말을 후일 증언한 것은, 당시 헌병 보조원으로서 이 사건 취조의 통역을 맡았던 박 용진(朴龍鎭)이다.

이 사건 후, 황곡리 마을은 조선 총독부 경무국으로 <요 경계 지구(要警戒地區)>로 정해졌고, 일체 외지(外地)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였는가 하면, 사건 자체를 보도 관제(服道管制)하였던 것이다.

군자금 징모

그리고 1915년에 일어났던 <단천 자립단 사건(端川自立團事件)>이 또한 <단천 출신 김 일성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지하 조직의 발상지가 바로 단천군 수하면이다. 그 때, 벌써 단천 고을 사람들은 김 일성 부대의 항일 투쟁을 알고 있었으며, 이 조직을 통해 독립군 군자금(軍資金)을 징모하였던 문헌 기록이 있다(단천 자립단 사건 참조).

특히, 수하면 <까마귀 둥지> 사건은 단천 고을에 널리 알려진 사건이다. 세칭 까마귀둥지로 불리우는 수전노(守錢奴)가 군자금 징모에 일단 응해 놓고, 돈 내는 것이 아까와서 독립군 군자군 징모 사실을 밀고하여 휘생자를 낸 일이 있다.

이 소식을 들은 독립군들은 이 까마귀둥지를 잡아다가 얼음 구멍에 집어 넣었는데, 얼음 밑으로 10 리나 흘러 내려가서 살아난 일이 있었다.

이 때, 희생된 사람이 바로 김 일성 부대의 군자금 징모원이었던 사실을, 당시 이곳 주민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상 증언으로 미루어 보아 분명히 항일 독립군으로 활약한 단천 출신 김 일성 장군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 분은 연령적으로나 출생지로 보아 현재의 북한 집단의 김 일성과는 다른 사람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이제 단천 출신 김 일성에 대한 문헌상의 기록 그리고 단천 출신들의 증언(證言) 및 <김 일성 장군은 단천 사람>이라는 구전(口傳)을 들어온 고인 또는 현존 인물들이 증언을 여기 참고로 수록(收錄)하기로 한다.

문헌상(文獻上)에 나타난 근거(根據)

□ 1918년에서 1948년까지의 조선 공산주의 운동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

1967년에 미국의 <프린스톤 대학> 출판부에서 간행된 이 책은 <김 일성>이란 이름이 오르내린 문헌(文獻)을 다음과 같이 열거(列擧)하고 있다.

① 1923년 6월 5일자로 발송된 함남 도경(咸南道警)의 공문(咸南警秘 128號)에 보면,

"김 일성 일당이 만주 간도성(間島省) 내에 근거지를 두고 조선 내에 잠입하여, 항일 투쟁을 위한 군자금 조달을 하였다"

고 기록되어 있다

② 1924년 2월 14일자 매일 신보(每日申報)에는,

"김 일성이 대한 의군부(大韓義軍府)의 한 부대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고 게재되어 있다.

이상 두 가지 기록을 보면, 단천 출신 김 일성 장군이 단천 등지에 군자금 조달을 했던 사실과 일치되며, 특히 대한 의군부가 민족주의 계통의 항일 독립 단체였음에 비추어, 단천 출신 김 일성 장군과 일치되는 점이 있다.

□ 조선 일보(朝鮮日報) <인맥(人脈)> 1969. 3. 25일자

동일자 계획 기사 중 단천(端川) 인물 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端			川
金 起 文	宣 祖	功 臣	王子의 스승
金 一 成	? ~1926	志 士	白頭山 게릴라로 유명
李 東 輝	? ~1928	〃	志士 臨政國務總理
薛 義 植	1900~1954	評 論 家	東亞日報 편집국장

□ 독립 운동사(제1권) 항일 의병사 P. 635

교육 도서 출판사에서 출간한 독립 운동사 편창 위원회 편<독립 운동사> 제1권에 보면, 단천 출신 김 일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김 일성(金一成)은 단천인(端川人)으로 1907년 군대 해산 후 기의하여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는데, 순국할 때까지 백두산을 중심으로 일군과 수십 차의 격전을 벌여 큰 전과를 거두고 일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1926년(丙寅)에 민족 투쟁사에 찬란한 빛을 남기고 순국하였다."

⊡ 민족의 별들(柳麟 著) 중,

내가 아는 김 일성 장군은 지금의 북한(北韓) 괴뢰 정권의 김 일성이가 아니다.

거금 29년 전 기해년(己亥年), 1935년 10월부터 남만주 일대(東南滿州一帶)에 걸쳐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신출 귀몰하는 전술로서 연전 연승을 거듭하는 유격대의 사자후가 출현했었다. 이 때에 일본 정부에서는 이를 가장 무서운 적으로 알고 국경 경비를 철통같이 강화하여 소위 만주국(滿洲國) 전반에도 경비는 삼엄하였다. 이렇게 세인의 이목을 놀라게 하는 유격대 대장은 성부지 명부지 신출 귀몰(神出鬼沒)하는 신인(神人)이라 하였다.

보천보 사건

세월은 흘러서 이듬해 7월에 간도성 왕청현(間島省旺淸縣) 소재지 시가를 진격하여 경찰서를 소각하고 일본 순경 3명을 사살한 대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비로소 김 일성 장군이란 이름만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두만강(豆滿江) 연안의 온성과 종성·웅기 등지를 기습 공격한 사건은 빈번하였으며, 1937년 정축(丁丑) 11월에는 평북(平北) 자성군 관할 연안 주재소를 습격하였으며, 익년 11월에도 함남 혜산군 보천보(咸南惠山郡普天堡)를 진격하여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소각하고, 일본 순경 3명을 사살한 대 전과를 거두었다. 이 때에, 그 시가지 남녀 다수를 모아놓고 애국 애족하는 계몽 연설에서, <나는 단천군 수하면 황곡리에 사는 김 두천(金斗天)씨의 차남인데, 이름은 일성(日成)>이라고 발표하였었다. 이 때부터 오인(吾人)은 명확하게 김 일성 장군의 내력을 알게 된 것이다.

그 자리에 있었던 청중들의 증언에 의하면, 연령은 40세 가량 되어 보이며, 용모는 검고 둥근 얼굴이었으며, 눈은 내리 뜰 때에 거적눈 비슷하고, 위로 뜰 때에는 보기에 무서운 대안(大眼)이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10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마음을 가다듬어 붓을 들었더니 30 년, 40 년 전의 일이 아득한 옛날 같기만 하다. 그러나 역사적 참고를 얻기 위해 40 년 전 기억의 소재를 얻어 양심적 애국자의 이면사를 쓰기로 한다.

김 두천의 아들

김 일성 장군의 본명은 창희(昌希)이다. 1896 년 병신(丙申) 8월에 함경 남도 단천군 수하면 황곡리 (咸鏡南道端川郡水下面黃谷里)에서 출생하였고, 그의 부친은 김 두천(金斗天) 선생이요, 모친은 설씨였다. 그리고 그의 형은 김 창원(金昌元)이요, 동생은 창도(昌道)이다. 그의 부친 김 두천 선생은 기골이 장대하고 풍채가 좋으신 호신수였다.

1907년, 함경 남도 온성 군수(穩成郡守)를 역임하고, 일평생 조국 광복을 위하여 애국 사상을 고무하며 향리 청년 계몽 운동에 격열하였으며, 독립과 부강이 민족의 각성과 단결에 있음을 역설하였었다. 김 일성 장군이 어려서 향리(鄕里) 사숙(私塾)에서 공부하는데, 그 천성의 명민함이 이미 들어나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었다.

1912년 임자(壬子) 단천 일진 소학교(端川一進小學校)를 졸업하고, 서울 배재학당을 졸업하였다. 학생 시대부터 남을 억압해 버리는 위력이 강한 동시에 인자한 미소가 있었다. 중학교 재학 당시에 검술이 남보다 월등하였으며, 그 때에 벌써 유도

인상(人相)

2 단이라고 세상에 알려졌다. 소년 시절부터 언족이식비(言足以飾非), 또 웅변의 소질이 있어 타인을 제휴하는 수단이 뛰어났다. 체격은 장신(長身)이었으며 용모가 뚜렷하고 광대뼈가 두드러졌고, 눈은 마치 삼국 시대의 관우(關羽)·장비(張飛)같이 양쪽 끝이 위로 찢어져서 호상(虎相)이 방불했다. 그러나 보통 시에 좌담할 때에는 눈까풀이 내려 드리우면 거적눈 비슷한 상이었다.

1919년 기미(己未))10월에 필자가 단천군 수하면 청년회 지육부장(智育部長), 체육부장(體育部長) 겸임 당시, 그의 고모의 장남 방 주익(方周翼) 동지와 필자가 서명한 추천장을 휴대하고 간도성 안도현(安圖縣) 송풍 낙월(松風落月)이란 곳에 성제 이동휘 선생이 창설한 국민회 독립군 군관 학교에 입교하여 3 개월간 훈련을 마치고, 노령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밀수 반입하는 책임을 지고 밀림 중으로 밤이 되면 70 리~80 리를 도보로 맹활약하였다. 이것은 보통 사람보다 힘이 장사였고, 행보가 남보다 우월한 관계이었다. 그리고 사격에 있어서도 장총이나 권총을 불문하고 공중에 날라가는 금수를 백발 백중으로 떨어지게 했다. 그 후 1921년 신유(辛酉)에, 그의 부친 김 두천 선생은 가족 전부를 대동하고 간도 길림 팔도구(間島吉林八道溝)란 곳에 이주하였는데, 그 후 11월에 김장군은 집에 와서 일야 숙박하는 동안, 불행히도 일본 영사관 순사 십여 명이 자정에 포위 급습을 감행하여 드디어 김장군은 체포되어 용정 총사령관에 압송되었었다. 그 직후 부친 김 두천 선생은 가족을 데리고 또 다시 조국 함경 남도 함흥시 중하리(咸興市中荷里)에 이사하여 왔다. 그 때에 조선 총독 사이또오(齊藤實)의 직속 기밀 촉탁 김 상설씨에게 교섭하여 마침내 귀순 면죄장을 수여케 하고, 드디어 김장군은 무죄 석방되어 함흥 본가에 돌아와 있었다.

함흥 중하리에

내가 1922년 임술(壬戌) 8월에 함흥군(咸興郡) 하조양면(下朝陽面) 천의산이란 곳에 와서 목재와 목탄 제조 사업을 경영하게 되어서 함흥군 중하리(咸興郡中荷里) 한 영호(韓永鎬)씨 집 바깥 사랑에 새로 거주하게 되었는데, 바로 김 두천(金斗天) 선생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이었었다. 내가 현장에서 어느날 밤 집에 돌아왔더니 소식을 듣고 김 두천 선생이 오셨었다. (그 때에 김 두천씨 나이 56세이었다) 여러 가지 환담하는 무렵에 말씀하기를 <내가 유선생에게 미안한 사정이 있어서 왔노란 것>이었다. <맏아들 창원(昌元)이가 우차를 몹고 다니지만, 그것으로 생활 유지가 안 되며 창희(昌希)가 무직으로 놀고 있는 것이 민망하니, 본래에도 유선생 밑에서 사랑을 받아왔던 아이이니 현장에 데리고 가서 심부름이나 시키는 것이 어떻읍니까>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고 있었으니 염려 마시라고 확답하였다. 그리하여 본래부터 의지와 사상이 동일한 정분인지라 열심으로 작업에 협력하여 왔었다. 따라서 사업도 잘 되어 흥미 있게 지내다가 익년(癸亥) 4월에 내가 긴급한 일이 생겨서 고향인 단천(端川)에 다니려 왔다가 차일 피일 지연되어 15일만에 돌아갔더니, 현장에 있는 목탄·목재 인부들에게 배급하는 양곡과 기타 각종 물품 등 전부를 매각 처분(賣却處分)하여 가지고 김 창희(金昌希)군은 행방 불명이 되었었다.

장신술 수련

그 후 1년 후에 돌연 편지가 왔는데 <형님 미안합니다. 용서하시오. 10년 후에 만나 뵈옵기로 맹서합니다>라고만 쓴 편지였다. 김 창희군은 동지 2 명을 데리고 월파(月坡)란 선생을 따라 석왕사와 강원도 삼방 지구를 근거지로 삼고, 장신술(藏身術)을

공부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치 대학 사무처장(政治大學事務處長)으로 있다가 6.25 때에 납치되어 간 설인(薛麟)씨(본명은 관건=寬建)가 소련으로 갈 때에 김 창희씨와 동반할 계획으로 삼방에 들려서 상면하였는데, 공부를 중도에 그만둘 수는 없고, 우선 자기는 소련으로 갈 생각은 없고, 장차 우리가 국가 대사업을 성취하려면 만주를 근거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를 역설하면서, 도리어 설(薛)형을 만류하려는 것이었다. 설씨는 김 창희씨의 이종형이었다. 이 때부터 김 일성이라고 개명하였다는 것이었다. 설 인씨는 이 길로 소련에 가서 공산 대학을 마치고 다시 서울에 와 있으면서 만주 일대에서 김 일성이 맹활약을 하여 오인의 이목을 놀라게 하는 소식을 널리 듣고 있었다. 김 일성 장군이 다시 도만한 때는 1928년 무진(戊辰)이었다. 이보다 먼저 합흥시 중화리에 거주하였던 그의 부친 김 두천 선생은 가족 전부를 데리고 또 다시 만주 동경성(滿洲東京城) <쑹이허>란 곳에 이주하여 갔다.

독립군의 조직

김 일성 장군은 왕년의 동지를 규합하고 독립군 중에서도 가장 실전의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무력단을 조직하고 항일 유격전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제일 처음 본거지는 왕청현 쌍하진(旺淸縣双河鎭)으로 들어가 <남북 마당>이란 곳이었다. 그러나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나 적군의 기습을 피하기 위해 군대를 한 곳에 집결시키지 않았고, 또한 한 곳에 3일 이상 머물러 있지 않았었다. 그러기 때문에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신출 귀몰하는 김 일성 장군이라고 세상에서 불렀으며, 왜놈들도 눈이 뒤집혔다. 동만주(東滿洲) 항일 유격대(抗日遊擊隊)와 남만주(南滿洲) 항일 유격대를 연합하여 조국 광복회(祖國光復會)를 조직하고 십대 강령(十大綱領)을 선포하고 사령관으로 선출되었었다. 그리하여 백두산맥(白頭山脈)과 송하강 유역에 근거지를 두고 무송(撫松)·만장(滿場)·장백현(長白縣)·안도(安圖) 등지 도처에서 독립 사상을 고취하며 적과 총격전에 있어서도 백전 백승의 기세였다. 앞에 말한 보천보(普天堡) 진격 사건도 이 때의 일이었다.

사령관으로

김 장군의 나이 42세이다.

동만주로 이동

……그 후에 내가 아는 김 일성 장군은 군대를 인솔(引率)하고 동만주에 이동하였다는 말이 있었다. 1935년 기유(己酉) 5월에 왕청 대황구(旺淸大荒溝)란 대시가를 기습 점령하고, 경비 전화로 본서에다 <내가 김 일성 장군인데 지금 대황구 시가를 공격 점령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곧 이곳에 오라>는 위협 전화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 때에 적들은 공포심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김 장군은 용정 영구덕(龍井英口德) 병원에 2 주일간이나 입원한 일이 있었는데, 퇴원할 때에 한인 의사와 간호부들을 모아놓고 <내가 김 일성이니 일본 영사관에 신고하라>는 것이었다.

형사대가 곧 뒤를 따랐으나 인홀 불견(因忽不見)이 되어 행방을 알 수 없었던 것이라 하였다.

병원 진단 명부(診斷名簿)에는 김 창욱(金昌旭)이요, 연령은 40세라 되어 있고, 이 때의 병원 사람들 증언에도 나이는 40세 가량이요, 인상 체격도 꼭 같다는 증언이었다. 1941년 신사(辛巳) 3월 29일 오후 4시 경이었다. 필자가 모 사건으로 단천 경찰서(端川警察署) 유치장 3감방에 들어간 때의 일이었다. 우연히 이 감방에서 김 두천

아버지를 감금

선생을 만나게 되었었다. 서로 감개 무량한 심정으로 악수를 하였다. 선생은 만주(쑹이허)에 거주하고 있는데, 고향에 다니러 왔다가 자기의 아들 일성의 소재를 고백하라는 이유로 유치된 지 2 주일이나 되었다고 말하였다. 사실인즉, 선생도 알지 못하는 일이었다.

나는 익일 조명에 성진(城津)에 압송되어 갔으나 3일 후 무사히 석방되었고, 김 두천 선생도 석방되어 풍산군 상장(豊山郡上庄)에 가서 거류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으나, 그 후에 다시 상봉치는 못하였다. 그 후에 김 장군의 형 김 창원씨는 동경성에서 왜경에게 체포되어 압송 도중 열차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였다는 소문이 들려 왔다

일본 육사설

1941년 가을이었다. 함흥 주둔 17연대 길전(吉田)이란 연대장(聯隊長=韓人)이 영생 중학교(永生中學校) 강당에서 시국 강연을 할 때에, 마침 내가 방청한 일이 있었는데, <김 일성은 경기도(京畿道) 사람이요, 자기와는 일본 사관 학교(日本士官學校) 동기생이며, 재학 당시에 하나 밖에 없는 〈천우였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군부 명령으로 기회(幾回)에 한하여 귀순 공작에 적극 주력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음을 개탄하며 사실은 일본 군부와 외무성에서 막대한 경비를 소모하면서 또 인적 피해도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었음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필자는 속마음으로 대단히 어리석은 강연이라고 생각하였다. 김 일성 장군은 도일한 일이 전혀 없었으며, 일어는 한 마디도 알지 못하였다. 그 후 일본국은 드디어 패망하고 8.15 해방은 왔는데, 조국 광복을 위하여 사상 광전의 성장(聖將)으로 항일 투쟁에서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준 장열한 용사이었던 김 일성 장군의 영령(英靈)도 이제껏 나타나지 아니함은 우리 3천만 겨레가 다 같이 크게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애도를 표하는 바이다.

이종형의 면회

해방 이듬해 4월에, 설 린씨는 생각하기를 평양(平壤)에 와 있는 김 일성이 틀림 없는 자기의 이종제(姨從弟)인 줄만 믿고, 불원 천리하고 평양 가서 면회를 요청했으나 십 수일이 되어도 용이하게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애걸 복걸 <나의 고모의 아들이니 꼭 면회하기>를 원하였다. 그리하여 김 일성은 반신 반의하면서 면회를 허용하였던 것이다. 정작 면회하고 보니 난데 없는 김 일성(김성주〈金成柱〉)이요, 난데 없는 설 린이었다. 그리하여 면회장에서 수라장을 이루는 연극이 한참 동안 벌어졌다. 드디어 설 린씨는 투옥되어 3 개월간이나 옥중 생활을 하다가 천운으로 석방이 되어 다시 상경하여 정치 대학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 6.25 동란 때에 납치되어 간 연후엔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있다.

□ **金日成の 思想と行動(玉城素著・コリア評論社)** P. 49

……解放と分裂以後の南朝鮮ではこの問題について三つの說があらわれた. その第一は, 一九五〇年にあらわれたもので 傳說上の金が日本の陸軍大學を卒業し朝鮮獨立運動に投じたのち一九二二年に滿洲で死んだというものである. その第三は一九五六年に發表されたもので傳說上の金は咸鏡南道端川で一八八八年に生れた愛國者であつて滿洲で抗日鬪爭をしたのち一九二七年に死んだとするものである,

증언(證言)들

□ **서 춘식(徐春植)씨 증언**(수하면 출신=당년 77세)

김 일성의 본명(本名)은 김 창희(金昌希)이며, 함경 남도 수하면(水下面) 황곡리(黃谷里) 출신으로 함경 북도 온성(穩城) 군수를 지낸 바 있는 김 두천(金斗天)의 둘째 아들이다. 17~8세의 나이로 단천에서 1907년에 의병을 일으켰다. 김 창희는 어려서부터 기골(氣骨)이 범상치 않고 군사놀이를 즐겼으며, 재간이 아주 좋아 자기 손으로 만든 총으로 새나 꿩을 백발 백중 맞히는 총쏘기의 명수였다. 10여 세부터 힘이 어른보다 더 세고, 뜀박질은 마치 날으는 듯하였다.

김 창희는 14세 때 두 마리의 소에 의해 발갈이하는 보섭(方言=양가대기)을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훌렁훌렁 뛰어 넘는 것을 봤다. 그래서, 모두들 김 창희를 <비장(飛將) 비장>하고 부르는 것을 들었다.

비장으로 불려

김 창희는 1907년, 17~18세의 나이로 의병에 가담하면서부터 <김 일성(金一成)>이라고 쓰기 시작했는데, 부하들을 거느리고 처음에는 단천 오봉산(五峰山)에다가 근거지를 두고 왜경(倭警)과 싸우다가, 나중에는 더 험약(險惡)한 검덕산(檢德山)으로 옮겨갔다.

오봉산은 검덕산의 한 줄기인데, 이 산악(山岳) 지대가 바로 마운령산맥(摩雲嶺山脈의 지백(支脈)으로, 단천·풍산·갑산 등의 군계를 이루는 고산 지대이며, 그 능선(陵線)을 타고 올라가면 백두산(白頭山)에 도달하게 된다.

또 이 산악 지대에서 무산(茂山)쪽으로 내려가면 농사동(農事洞)이 나오고 강을 건너가면 장백 무송현(撫松縣) 화룡현(和龍縣)이다.

김 일성 부대는 이 지대 중, 단천쪽에 가까운 제일 높은 봉우리인 검덕산에 근거지를 두고, 그 주면 일대를 유격(遊擊)하면서 왜경을 괴롭혔다.

□ **진 승렬(秦承烈)씨의 증언**(단천 출신. 72세. 당시 단천 경찰서 근무)

잡힌 독립군

내가 단천 경찰서에 근무하게 되어 제일 처음 맡은 유치장 간수(看守)때의 일이었다. 약 한 달쯤 근무했을 때, 그러니까 1922년 음 8월 14일 석양(첫 근무했던 해의 추석 전날이어서 언제까지나 기억이 생생하다)에 몇 사람의 독립군이 잡혀 와서 유치장에 수감된 일이 있었다. 그 때 내 나이가 22세였는데, 일본인 상사(上司)로부터 <이 사람들은 10여 년 짜리 징역감이니까 똑똑히 간수하라>고 주의를 받았다.

당시 서장 사루와다(猿渡)는 용무로 도일 중(渡日中) 이었고, 경무 주임 시모지마(霜島)가 서장 대리를 보고 있었던 때이다. 그 때 독립군 중의 한 사람이 그 전부터 귀에 익혀 들어오던 김 일성(金一成) 장군이었다.

김 일성 탈옥

김 일성 장군이 잡혀 왔다는 얘기를 듣고 황곡리의 친척(親戚)인 어떤 할머니가 사식(私食)을 가져왔길래 내가 넣어 주기도 했는데, 그 때만 해도 감방(監房) 안에 변소가 없어서 밖에 나가 용변을 보아야 했는데, 웬 일인지 내가 당번 때만 되면 그 분은 용변하러 가겠다고 해서 내놓았는데, 그날 밤 그는 용변 길에 탈옥(脫獄)하고 말았던 것이다.

서장이 도일 중이어서 없었던 때라, 일체 입밖에 내지 못하게 하고 말았다. 당시

김 일성 장군은 35 세 가량이었다. 그 때 단천에 유명한 박 승혁(朴承赫)씨도 함께 잡혔는데, 그는 그후 형을 받았다. 김 일성 장군은 탈옥 후에도 여러 해 동안 그의 출몰 정보는 그치지 않았다.

□ **함 국형(咸國衡) 씨의 증언** (1938년 경 수하면 면장 역임=67세)

주재소에 기관총 내가 수하 면장(水下面長)으로 있을 때에 김 일성의 출신 부락인 황곡(黃谷)에 간 일이 있었다. 황곡에는 주재소(駐在所)가 있었으며, 이 주재소에는 기관총까지 장치되어 있었는데, 산간 부락에 주재소까지 있고 또 기관총까지 장비되어 있는 것은 김 일성이 오봉산(五峰山)에 근거지를 두었던 때부터라고 했다.

이 황곡 부락에는 동학도 (天道敎敎徒)들이 많이 살고 있었으며, 황곡에서 좀 올라가면 오봉산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옛날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었다.

물 방아터가 있고, 집은 없는데 옛날에는 한 70호 가량 살고 있었다고 했다. 내가 갔을 때에는 임 곡산(林谷山)이란 황해도 사람 한 사람이 외롭게 살고 있었는데, 그 곳이 옛날 김 일성 부대가 있던 곳이라 했으며, 김 일성 부대는 이곳에서 검덕산(檢德山) 을 거쳐 백두산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그는 말해 주었다.

우리 단천에 오도감(吳都監)이라는 부자가 있었는데, 내 조부는 남한테 뒤지는 것을 싫어하는 성미여서, 면에서 세금 고지서(稅金 告知書)가 나오면 으레 오도감의 세금보다 낮으면 내지 않겠다고 버티는 위인(爲人)이었는데, 나는 그 조부한테서 오도감과 같이 김 일성 부대의 독립군 자금(獨立軍資金)을 의론해서 낸 이야기를 3.1 운동 전전해(1917년)에 들었으며, 그것이 내가 김 일성 장군 얘기를 들은 처음의 일이었다.

그 후 장성하여 연전(延專)을 졸업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수하 면장으로 일할 때까지도 국경 지대에 독립군이 나왔다 하면, 그것은 으레 김 일성 장군의 소행(所行)인 것으로 알려졌던 것이며, 또 그 김 일성을 단천군 수하면 황곡리 사람으로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오 도감이나 우리 조부는 살림이 여유가 있은 데다가 김 일성 장군으로부터 군자금 요구가 오면 순순히 응락(應諾)했기 때문에 별 탈은 없었으나, 돈푼이나 있으면서 군자금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는 무서운 보복(報複)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 **김 순언(金淳彦)씨의 증언** (수하면 출신=60세)

항일전(抗日戰)의 영웅 김 일성 장군은 단천군 수하면(水下面) 황곡리(黃谷里) 자관촌(自寬村) 태생으로서 본명은 김 창희(金昌希)이다.

그는 애국 지사인 부친 김 두천(金斗天)과 모친 설씨(薛氏) 사이에서 태어난 3형제 중 둘째이다. 형은 창원(昌元), 동생은 창도(昌道) 이다.

아버지 김 두천은 청운의 뜻을 품고 화전민촌을 등지고 과거 길에 나서서, 마침내 등과 급제하여 함북 온성 군수(穩城郡守)로 부임, 그 곳으로 솔가(率家)했다. 그 때, 자관촌 한문 서재에서 수학 중이던 창희 나이는 9세였다.

남편이 집 떠난 후,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가던 설씨는 해산(解産) 날이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5리 길 넘는 감자 밭에 일 나간 시부(媤父)에게 점심을 가지고 갔는데, 때

마침 시부는 그 곳에 없었다.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번쩍이면서 설씨 산모는 안개에 감싸이게 되었다.

설씨는 갑자기 심한 진통을 느끼면서 산기(產氣)가 있자, 하는 수없이 숲속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았다.

운무 속에 태어남 운무(雲霧)가 자욱한 산 속에서 갑자기 산이 쩡쩡 울리는 아기 울음 소리가 나자, 마을 사람들이 뛰어 올라와 산모는 집으로 옮겨졌던 것이다. 이 때, 시아버지는 목노(올가미)에 걸린 멧돼지를 메고 집에 마악 도착했다. 창희는 이렇게 태어났다고, 어른들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천생 비범(非凡)하게 난 창희는 저보다 몇 살씩 위의 아이들까지 손안에 넣고 병정놀이를 하기가 일쑤였다고 한다.

그는 활을 만들어 동네 개돼지의 눈을 쏘아 멀게 하는가 하면, 제 비위에 거슬리면 그 아이는 여지 없이 해 치우는 난폭한 아이였다는 것이다.

그는 여러 차례 고향인 오봉산(五峰山)에 와 주둔하면서 군자금을 징모(徵募)해 가곤 했다.

그러나, 항상 자신의 정체(正體)를 베일 속에 감추고 다니는 창희가 김 일성 장군임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홀로 만주에서 후일 전해 오는 얘기에 의하면, 김 창희는 한때 홍 범도 장군의 독립군에서 일본군과 싸웠으며, 1916년 20으는 김 좌진·홍 범도 장군 등이 지휘하는 독립군이 봉오동(鳳梧洞)과 청산리(靑山里)에서 일군 대부대를 격멸한 후, 사세 부득(事勢不得)으론 노령(露領)으로 넘어갈 때, 창희는 끝까지 만주에 남아 항일전을 전개할 것을 결심하고, 동조하는 독립군을 거느리고 장백산(長白山)으로 집결하였다는 것이다.

이 때, 만주에 있는 민족 진영은 구심점(求心點) 없이 사분 오열(四分五裂)되어 저마다 세력 다툼을 하는 틈에 날뛰는 적화 공작 무리들에 의해 더욱 혼선(混線)을 빚었다.

이러한 난경(難境)을 수습하기 위하여, 김 창희는 자기가 바로 <김 일성>임을 밝히고 민족 진영 세력을 규합하여 <조국 광복회(祖國光復會)>를 조직하고 항일 유격전(抗日遊擊戰)을 벌였다는 것이다.

특히, 각 행동 대장에게 <김 일성>이라는 칭호(稱號)를 주어 십리전을 벌였으며, 이것이 후일 <김 일성은 신출 귀몰하는 인물>로 널리 알려진 연유인 듯하다.

그러나 붉은 마수는 김 좌진 장군을 동경성(東京城)에서 제거하던 수법으로 민족 진영의 실전적인 영도자인 김 일성(金一成)장군을 배제하고, 해방될 때 공산 앞잡이를 내세우려는 크레믈린의 지령에 의하여, 1937년 장군은 측근으로 침투한 붉은 터러에 의해 암살되었다고 들었다.

그리고 우리 고을에는 <까마귀 둥지 사건>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다.

수하면에서 제일 현금이 많은 사람에 김모란 사람이 있었는데, 하도 구두쇠여서 <까마귀 둥지>라는 별명(別名)이 붙어 있었다. 박 승혁(朴承赫)이가 김 일성 부대원을 안내하여 까마귀둥지 집에 가서 군자금을 요구하니 까마귀둥지는 돈을 내겠다고 해놓고 피신하고 말았다.

화가 난 김 일성 부대원은 끝내 까마귀둥지를 붙잡아서 새끼로 꽁꽁 묶어 가지고 얼음 구멍에다 처넣었다. 그러나, 명이 길었든지 까마귀둥지는 얼음 밑으로 4킬로 가량 내려가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까마귀둥지나 김 일성 장군 얘기는 당시, 온 단천 바닥에 유명해졌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왜경의 수색전이 강화되어 오봉산의 김 일성 장군은 거점을 백두산 기슭으로 완전히 옮겨갔던 것이다. 이밖에는 김 일성 장군의 무용담(武勇譚)은 얼마든지 있다.

□ **김 성한(金聲翰)씨의 증언** (함남 풍산 출신 <신동아지 주간>)

나는 고향이 함경 남도 풍산(豊山)인데, 어릴 때부터 국경 지대에 출몰하는 김 일성 장군 얘기를 들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김 일성 장군을 단천군 수하면 황곡리 출신의 항일 애국 투사>라는 사실과 <김 일성의 부친은 구한 말(舊韓末)의 온성 군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 듣기에는, 김 일성 장군의 힘이 보통 사람과 달라 왜경(倭警) 2명에게 붙잡혀서 단천 경찰서로 호송(護送)될 때에, 산마루턱에서 감쪽같이 왜경 2명을 때려 눕히고 무난히 도주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

□ **유 동섭 할머니의 증언** (신앙촌 거주=78세)

내 남편의 외오촌(外五寸) 조카 김 창희가 김 일성이었는데, 수하면 황곡리가 고향이었다. 일제 시대에 독립 운동을 했다. 김 일성의 아버지 김 두천(金斗天)은 함북 온성 군수를 지낸 사람인데, 군수로 있을 때에 첩을 살해한 일이 있어서 1년 반 동안 복역한 일이 있었으며, 김 일성의 집안은 동학장이(天道敎徒)라고 해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지금 살아 있으면 나보다 두 살인가 세 살인가 위였으니까, 80세나 81세 가량 될 것이다.

정 오 표 (正誤表)

페이지	오 식 (誤)	정 정 (正)	페이지	오 산 (誤)	정 정 (正)
146~ 33행	허성락(許成洛)	허석락(許錫洛)	442~ 33행	허정협(許庭協)	허정협(許廷協)
148~ 31행	강이윤(姜利潤)	강이윤(姜理允)	442~ 34행	허석찬(許錫贊)	허석찬(許錫讚)
151~ 11행	謄川女子中學校	端川女子中學校	448~ 24행	엄학권(器學權)	엄학권(嚴學權)
152~ 12행	진승렬(奏承烈)	진승렬(秦承烈)	463~ 5행	김재익(金在鎰)	김재일(金在鎰)
287~ 21행	동태운(蕉胎芸)	동태운(董胎芸)	471~ 6행	심학란(沈學洛)	심학락(沈學洛)
287~ 32행	손정준(孫廷准)	손정회(孫廷淮)	472~ 2행	허벌수(許範洙)	허범수(許範洙)
287~ 23행	허승욱(許承郁)	허승욱(許承郁)	472~ 5행	한철환(韓喆煥)	한철환(韓鐵煥)
291~ 右2행	유병선(柳炳善)	유병선(柳炳先)	138~ 31행	김삼기(金基三)	김기삼(金基三)
294~ 右32행	김영준(金榮濬)	김영선(金榮璿)	144~ 7행	김의구(金義球)	김이구(金利球)
300~ 右17행	이용록(李龍琭)	이용록(李龍錄)	393~ 17행	1947년9월27일	1947년6월15일
321~ 左17행	단천읍 복천리 (福川里)	이중면 돌산리 (乭山里)	234~ 27행	문암리(門岩里)	용암리(龍岩里)
321~ 左12행	수하면 용원리 (龍源里)	이중면 돌산리 (乭山里)	309~ 右12행	대한 청년단	대한독립 청년단
417~ 8행	김영준(金榮璿)	김영선(金榮璿)	315~ 左32행	서북 청년단	서북 청년회
441~ 17행	허용욱(許容旭)	허용우(許容尤)	450~ 24 행	김희천(金熙千)	전희천(全熙千)

단천 군지(端川郡誌)

1971년 9월 1일 인쇄
1971년 10월 1일 발행

편집겸 발행 단천 군지 편찬 위원회 (端川郡誌編纂委員會)

인쇄 광명인쇄공사 (光明印刷公社)

〈비 매 품〉